개점 18주년 롯데백화점 광주점

쇼핑 인프라 혁신…지역 대표 유통 발돋움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스마트픽·앱 결제 서비스

영어·중국어·일본어 통역 배치, 전통시장과 상생

#1.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장에서는 이따금 진풍경이 연출된다. 200~300여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몰려다니며 물건을 사고, 유창한 중국어로 이들을 응대하는 매장 직원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광주가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쇼핑 시설이 필수인데, 최근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적극적으로 '중국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2. 기록적인 무더위가 계속됐던 지난 여름, 오후가 되면 광주지역 택시운전사들이 롯데백화점 광주점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이 백화점은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로 택시운전사들에게 비타민 음료 등 시원한 음료수를 나눠줬다. 올 여름, 이 백화점의 작은 선행은 입소문을 타고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개점 18주년(지난 18일)을 맞아 대대적인 매장 개편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롯데백화점 김정현 광주점장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급변하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고객 수요까지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통 변화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유통업체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며 "새로운 환경에 빠른 적응력을 위해 쇼핑 인프라 혁신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차별화된 매장개편(MD)을 통해 지역 백화점 한계인 해외 고객 수요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합해 온·오프라인 매장에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 옴니채널(Omni channel)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김정현 점장

온라인 주문 후 백화점에서 해당 상품을 직접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 픽'과 백화점 행사 및 상품 안내를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한눈에 간편하게 볼 수 있는 '스마트쿠폰 북', 카카오 톡과 연계해 실시간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옐로아이디',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앱으로 결제할 수 있는 '엘페이'가 대표적 서비스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통한 구도심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해외 및 외지 관광객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무안공항을 오가는 전세기가 취항하면서 광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층에 프라다, 페라가모, 미우미우,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몽블랑 등 해외명품 관을 지역 최초로 오픈 했다.

또 10층 식당가에는 생고기 비빔밥 원조로 알려진 '옥과 한우촌', TV 프로그램에서 초밥의 달인으로 선정되어 유명세를 떨친 '가매 일식', 담양에서 50년 대대로 내려오는 수제 조리법으로 떡갈비를 만들어 온 '덕인관', 퓨전 디저트 카페 '부래옥' 등 지역의 유명 맛집도 입점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전경.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외국인들의 쇼핑 및 세금환급,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돕고 있으며, 롯데백화점 글로벌 콜센터 및 통역자원봉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응대 매뉴얼 마련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상생협력 사업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 전통시장인 대인시장과 상생협력 협약식을 맺고 전통시장 자생을 위해 백화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장 상인들에게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사후 관리해주고 있으며 전기·소방시설, 노후 점포 리모델링, 상인 자녀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 완도 및 순창 등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와 우수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지역 특산물 특별전'을 열고 있다.

김정현 점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매장개편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지역 대표 백화점으로 거듭나겠다"며 "지역민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지역과의 상생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15.78 (+16.42)	↓ 금리 (국고채 3년) 1.35% (-0.01)
↑ 코스닥 666.64 (+6.49)	↓ 환율 (USD) 1118.10원 (-0.70)

한국전력은 지난 19일 나주 혁신산단에서 입주기업 첫 제품을 생산한 (주)이우티이씨 동판 전달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강인규 나주시장, 장병완 국회의원, 조환익 한전 사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평 이우티이씨 대표. 〈한전 제공〉

나주 에너지밸리 1호 제품 생산

이우티이씨, 고효율 변압기·파형관 생산…한전 기념식 개최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전남 나주 지역에 조성 중인 '빛가람 에너지밸리'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19일 한전에 따르면 전력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이우티이씨는 이날 나주시 혁신산단에서 에너지밸리 제1호 제품 생산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999년 설립한 이우티이씨는 지하전력시설물 위치 탐지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날 고효율변압기 와 파형관 제품을 생산했다. 이우티이씨는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기업에 해당해 올해에만 105억원 규모의 고효율변압기를 수주했으며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평 (주)이우티이씨 대표이사는 "이곳에 8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설립했고 지역 인력 45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2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해 에너지밸리에 외국인 기업을 포함해 17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100여개 기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끔 유도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김영란법 대비 부패 대응 사례 공유

광주상의, 22일 페어플레이어 클럽 세미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대응과 준법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페어플레이어 클럽 세미나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이번 페어플레이어 클럽 세미나는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과 광주상의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부패 리스크 방지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후원으로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개최한다.

성문옥 광주시 감사위원장이 강연자로 나와 '광주광역시 청렴·윤리정책'을 주제로 계약·인허가 등 기업 접점 업무에 대한 광주시의 청렴·윤리정책 방향을 설명한다.

또 변호사 및 유엔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 관계자 등도 나와 '청탁금지법의 국내기업 대응방안'과 '기업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지멘스 코리아의 반부패 대응 사례' 등도 소개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바뀐 비즈니스 환경에 대비해 반부패 대응사례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지난 김영란법 설명회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성과연봉제 저지' 금융노조 23일 총파업

노조 "쉬운 해고 꼼수"…은행들 비상체제 가동키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은행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들은 금융노조의 임단협 파트너인 사용자협의회를 사실상 해체하며 금융노조와의 단체 협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별은행 노조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각개격파' 전략을 내세웠다.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은행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들의 보수는 개인의 능력에는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임금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익이 줄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돼야 하는데 임금은 그냥 올라가는 구조인 데다가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각종 복지 예산도 많아 비용이 줄지 않고 있다"며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노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우선 성과연봉제가 이른바 '쉬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노조는 보고 있다. 특히 사용자협의회가 금융노조와 산별 협상을 하면서 개별 성과연봉제와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함께 요구하자 이런 우려는 증폭됐다.

도입 준비 기간이 짧아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 직원 간 판매 경쟁이 붙어 대출의 질이 떨어지고,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